

예 배 WORSHIP

August 11,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 7:1-15 인간의 범죄와 교훈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95장 / 나 말은 본분은 (통일찬송가 372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살과 세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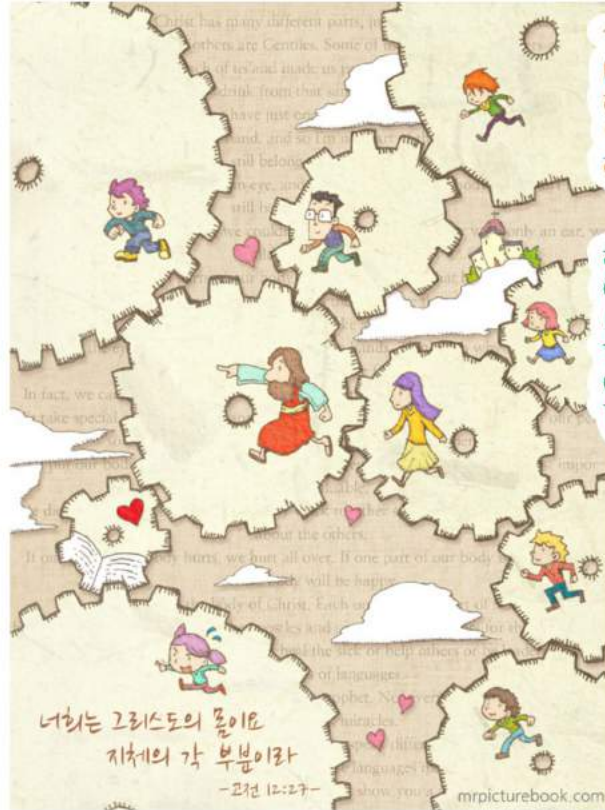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정홍렬 목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31:1-18
 기쁨으로 자원하는 일꾼들

목상에세이



기쁨
 뿌려주기
 해도
 우리는
 한마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찬 주간의 기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 많은 일 속에서 성령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잃지 않게 하소서. 가르쳐 주신 꽃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영양음악
 14:24

“...꿈(이)은 영(성)을 얻기 위하여...”

삼과 신앙

사도바울은 로마서 7장 15-18절에서 내면의 자신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입니다.

1.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15절)”, 이 말씀은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의 잘못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주체는 대개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모든 것을 밖으로 투사하게 만들어, 적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속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모든 것은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다고 속삭입니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마귀의 투사에 걸려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두 타인의 잘못으로 투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입니다.

2. 경험의 부정성을 깨달아야 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 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16-17절)”, 이 말씀은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죄라고 알려줍니다. 죄란 자기가 중심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죄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죄의 정체는 부정성입니다.

죄는 우리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합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나 좌절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죄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결국, 죄된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면, 언제나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세상을 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 “나는 피해자”라는 속삭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18절)”, 바울은 죄가 주체가 되어 작용하기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나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아담맞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외부에 있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은 사실상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기분은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나를 감싸주는 것 같지만, 나를 언제나 약자나 피해자로 만들어 상대방의 잘못만을 보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영의 눈으로 내 안의 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존재로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한다. “주님! 내가 힘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될 때, 혹시 내가 가해자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8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영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나는 삶을 누립니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치유와 회복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3. Power Prayer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운동에 불을 붙입니다.
4. 여름학기 주일성경공부 참여하여 영성 훈련의 기회로 삼습니다. 요한복음의 7 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5. 개학준비 자녀들이 새학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시작하도록 도우며 기도합니다.
6. 유치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8. 8월의 사역일정

8.11 Oikos 셀모임 / 9.1-2 노동절 전교인 수련회

♥생일 축하♥ 최성주(8/16) 김신실 (8/18) 정줄리 (8/3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주일에배기도	8/4	8/11	8/18	8/25
	장영현전도사	최선운집사	구은강집사	구 민집사
금요일배기도	8/9	8/16	8/23	8/30
	김훈태집사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8/4	8/11	8//18	8/25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홍현근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구 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인생의 여리고 / 여호수아 6:1-16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나 숙제, 즉 여리고가 존재한다. 건강, 자녀교육, 대인관계, 재정적, 심지어 신앙과 사명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과 재능,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고 해결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순종과 기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비결이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보이며, 하나님의 해결안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세상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자.

아간의 범죄와 교훈 / 여호수아 7:1-15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여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기세로 아이를 공격했지만 그 결과는

그 원인은

여호수아의 반응은

하나님의 대안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아간의 범죄와 교훈 / 여호수아 7:1-15

아간의 범죄와 그 결과에 관하여 살펴보면,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세를 몰아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아이성을 함락시키려 했다. 그래서, 약 3 천 명의 군사들만 아이성으로 보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유는 한 사람의 범죄였다.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전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게 될 전리품에 관하여 명하셨다. 즉, 성 안의 모든 사람과 가족을 다 죽여야만 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없앨 수 없는 것들, 즉 금 은과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아간이 이 명령을 어겼다. 아간은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해 감추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아간의 욕심은 만족은커녕 무서운 심판으로 나타났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이 바쳐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온전함이었다. 하지만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온전함이 깨어졌다. 아간이 훔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온전함이 깨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깨어진 온전함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아이성 패배 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어야 할 물건을 가진 자를 찾아서 그 물건과 함께 영원히 멀어야 했다.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심판을 받고 말았다. 돌로 친 다음에는 모든것이 불살라졌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게 된다. 아간이 그토록 욕심내던 것들은 불살라진 채, 이 돌 무더기 밑에 깔렸던 것이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것이 욕심의 결과였다.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욕심을 다스려야 한다. 욕심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하나님 밑에 놓는 것이다. 즉, 욕심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욕심을 이기게 만든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게 되면, 우리는 아간처럼 범죄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고 있나? 그래야 할 것이다.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어야 한다. 욕심 때문에 물질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장 된 것이 내가 범사에 참되고 기쁘게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August 11,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도약의 달

믿음의 성장 / 신앙생활의 성숙 추구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사각지대(死角地帶)



연체부터 인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박히지 해가 불렀고 그들이 내가 부른 자 고민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나를 잊어버렸다.
호세아 1:6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